

文 리더십 표류 산으로 가는 ‘새정치’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에 비노 강력 반발

메르스 사태로 잠복한 계파갈등 다시 깨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표류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16일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가 메르스 사태 여파로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을 다시 깨우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비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로 사무총장은 물론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의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내에 주요 당직 인사가 이뤄지지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문 대표에게 “당직 인선에 있어 혁신을 최우선으로 뒤 달라”고 주문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

린 점도 빼아프다.

문 대표가 혁신위 출범과 함께 통합의 인선으로 당 분위기를 다잡는 리더십 발휘에 또 다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문 대표의 리더십이 표류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선 주자였지만 초선 국회의원이자 집에서 현직을 잃고 판단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대 직후 탕평 인선을 내세웠지만 양승조 사무총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지명직 최고위원,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등 전대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인사들을 중

용,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또 4·29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 경선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략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동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다 비노 일부 인사들은 ‘지도부를 흔들려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한 문 대표의 미발표 성명서 파문은 당내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당내 계파 갈등 수습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선주자 모임인 ‘희망스크림’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원장도 안철수 의원-조국 교수-박지원 의원 등이 거부한 끝에 막판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승낙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당내 화합을 위해 가졌던 의원 워크숍도

계파 갈등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빛이 바랬다.

문 대표 측에서는 리더십에서 일부 문제점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친노와 비노를 갈라치는 ‘분열의 프레임’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든 것을 ‘친노-비노’의 시각으로 보니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이 리더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정무적 감각이 취약한 참모진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내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 측에서 ‘분열의 프레임’을 닦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문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며 “문 대표가 먼저 ‘분열의 프레임’을 깨는 보다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윤리심판원’ 출범

원장에 안병욱 교수

이개호 의원 등 참여

김경협 징계안 첫 시험대

외부인사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안 원장을 비롯한 심판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에서 당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를 외부인사가 이끄는 것은 처음으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새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여서 ‘기강 세우기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전체 구성원 9명 가운데 당밖인사로 안 원장을 비롯해 김삼화 변호사, 박현석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 불교사회연구소 소장인 법안스님, 서화숙 전 한국일보 선임기자 등 5명이 참여했다. 당내인사로는 민홍철(천사) 이개호 인재국(부원장) 의원과 김하중 전 법률위원장도 포함됐다.

첫 발은 내디딘 심판원 앞에는 ‘비노 세력’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의원과 ‘전위부대’ 발언 논란에 휩싸인 비노계인 조경태 의원 징계요청서가 각각 제출돼 있고, ‘공갈 사퇴’ 막말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지뢰’가 도사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黃 총리 인준안 단독처리”

野 “표결불참” 반발 속 정 의장 오늘 직권상정 관건

새누리당이 17일 오후 단독으로 분회의를 소집, 황교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표결 불참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직권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정의화 의장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 일정에 대해 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17일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이 황 후보자의 사과와 의혹에 대한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3개 관련법 개정 약속이 전제되면 처리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단독 분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출석 체크에 들어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늦어도 17일에는 반드시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내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에 따라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분회의가 소집되면 불참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협상하면서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7일 여야 지도부를 한자리에 불러 합의를 중용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민경욱 대변인 “한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냐”

청와대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는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글자 한 글자를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렇다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헌법 수호의 임무를 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에서 자구 수정 작업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회 분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2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와대와 국회는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정면 격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른 대응책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메르스 확산 추세와 여론의 추이 등을 봐 가며 행사 시점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는 30일 국무회의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연 국회 이후 73번째가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당선 가능한 사람 공천하는 게 혁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6일 “새정치연합의 최대 혁신은 정권교체이며, 이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도 혁신공천을 통해 당선 가능한 사람을 공천해 원내 의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원승이는 떨어지면 원승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

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당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은 선비적 문예의식을 추구하면서 현실적 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이 상인 감각이 당선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 등 인위적 인적쇄신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주요방향으로 ‘정체성’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나치게 좌클릭해

패배를 경험했지만 대표가 된 후 경제·안보정당 등 중도개혁을 표방, 지지율이 올랐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현재 당내 최소 4대 그룹에서 분당 및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불신과 분열의 막말’의 사례로 든 데 대해 “벌써부터 신당창당 움직임이 있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되기에 잘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했고, 김 위원장도 상당히 경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광주·전남 大山 프리모 남가발

기능장1호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 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